

지역 소식통

정읍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사업 박차

정읍시가 정읍에 적합한 새로운 벼 품종개발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지역 맞춤형 벼 품종개발(SPP) 사업공모에 선정돼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선발한 새봉황·참누리바리 등 5개 계통의 벼와 신동진·참동진 등 비교품종 5가지를 재배 이후 이종에서 수량, 밥맛, 소비자 선호도 등이 우수한 품종을 1차 선별한다.

내년에도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해 우수한 품종을 최종 선정한다. 2025년에는 정읍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된 벼를 품종으로 등록하고, 이후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정읍을 대표할 쌀 품종으로 확대 보급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벼 신종 개발을 통해 정읍을 넘어 전북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랑상품권 12~15일 시스템 개편... 일시 중단

정읍사랑상품권 서비스가 12일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역화폐 플랫폼 chat'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것으로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90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중단 기간동안 정읍사랑상품권 구입 및 결제 등 모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또 가맹점 정산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며 15일 오전 9시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정읍사랑상품권 사용자 충전·결제 시스템 속도 향상 및 가맹점 앱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동안 시민과 이용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고창군, 총사업비 589억원 투입... 중심지활성화 등 개발 불균형 해소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등 시·군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각 개별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도다.

고창군 농촌협약은 향후 5년간(2024~2028년)간 총사업비 589억원(국비 389억원, 도비 59억원 등)을 투입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읍·면간 인구구조와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포함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농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창군수)와 농촌활력과(과장 홍정목)를 주축으로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행정협의회, 생활권단위 추진위원회를 꾸리며 적극적으로 농촌협약을 준비해 왔다.

여기에 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선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차질 없이 협력이 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총사업비 340억원 투입... 생활서비스 공급시설 확충 집중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34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부안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36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공동투자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은 전국 시·도 평가

에서 선정된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PPT와 대면평가를 거쳐 부안군을 포함해 최종 22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역점추진 사업으로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을 통한 면 소재지 기능 강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 △부안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다.

부안군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2년째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부안군 농어촌협약지원센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

담부서 지정, 자문단 운영 등 지역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 및 여러 자료 분석을 통해 부안군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대규모 국비확보 성과를 거두게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국비 확보를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 것”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현판식... 중간지원조직 통합 시스템 구축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가 지난 5일 오후 모양생마을 어울림센터 2층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마을공동체, 시군역량강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 개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군의회회장과 이경신 조민규, 이선덕 임종훈 군의원,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과 김성수 도의원, 고창군 중간지원조직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고창군도시재생 사업의 6개 팀 13명의 인력풀을 갖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 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개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을 통한 활동인력풀 구축과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김현정 센터장은 지난 3월 취임해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중간조직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센터장은 "개인과 마을, 마을과 지역사회의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수요조사

정읍시는 오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치비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신청 대상지역은 수성동, 장명동, 내장동,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등 6개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축물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는 오는 2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신청함을 통해 전소사업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이달 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화수 정읍시장은 "최근 전기요금 및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항일 애국투사 백정기 의사 순국 제89주기 추모제

항일 애국투사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제89주기 추모제가 지난 5일 정읍시 백정기 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됐다. 독립운동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독립운동의 '삼(三)의사'로 추앙받는 백정기 의사의 추모제는 그가 유년시절을 보낸 정읍에서 그의 호국정신을 기리며 진행되고 있다.

백정기 의사기념사업회(회장 유성엽)에서 주관한 이번 추모식에는 이화수 정읍시장, 유성엽 회장, 정읍시의회 고경운 의장, 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유족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수했다.

추모식은 국민의례로 시작해 백정기 의사 추모가 합창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백정기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화수 시장은 추모사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백정기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 애국선열의 뜻을 더욱 널리 알려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발전의 든든한 바탕으로 삼을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정기 의사는 1933년 중국 상하이 육삼장에서 중국 주재 일본대사 '히리요시 아키라'를 처단하기 위한 의거를 수행했다. 그러나 의거 직전에 발각돼 수감됐고, 꿈에 그리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수감 이듬해에 순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꿈의 댄스팀 부안' 단원 모집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은 오는 14일까지 2023 꿈의 댄스팀 부안 단원을 모집한다.

꿈의 댄스팀 거점기관 운영사업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춤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가치관·정체성·미래역량 발굴 등 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부안군 꿈의 댄스팀은 전 과정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오는 7월 14일~16일, 2차 3월간의 무용캠프를 시작으로 총 30회차 프로그램과 정기공연(11월)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무용감독인 이주연 대

표(일상예술 댄서)는 "부안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꿈'이란 메시지를 통해 '춤'이란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6년간의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춤을 추지 못해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춤에 관심이 있는 부안의 아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의 모집 대상자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아동·청소년으로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